

#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1만2000명시대 연다

## 외국인 유학생 종합지원계획 수립... 유치-양성-활용 3단계 전략 2029년까지 사업비 258억 투입 1만2000명 유치·정주율 10% 달성

광주시가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258억5000만원을 투입해 외국인 유학생 1만2000명시대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외국인 유학생 종합지원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 시행한다.

이 계획은 급격한 하령인구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대학 위기와 산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통해 글로벌 인재 확보는 물론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산업현장 인력 수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Gwangju, Your Global Campus-꿈은 세계로, 시작은 광주에서'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9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2000명 유치와 정주율 10% 달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유치 단계(지역 맞춤형 유학생 유치) ▲양성 단계(인재양성 및 유학생 생활 지원) ▲활용 단계(취·창업 및 정주 지원) 등 총 3단계 1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광주글로벌허브센터 설립, 지역대학 공동 해외유학 박람회 추진, 거점 한국어센터 구축,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산업 연계 인턴십 및 창업 지원, 맞춤형 체류비자 사업 추진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터 지역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오는 6월 '해외인재 유치 전략협의체'를 발족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매년 중간·연차 점검을 통해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숙 교육청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히 유학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글로벌 인재가 광주에서 학업과 경력을 쌓고, 지역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광주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정한 글로벌 캠퍼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에는 6339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지역 내 정주율은 5%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승원 기자

## 북구, 청춘페스타 '청년 기획자' 모집해요 행사 슬로건·콘셉트·프로그램 구성 등 기획 전반 참여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025년 청춘페스타'를 만들어갈 '추진기획단'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춘페스타 추진기획단'은 청년 문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청춘페스타가 청년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제를 기획하는 단체이다.

이번 모집에는 축제 기획에 관심 있는 북구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8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선발된 기획단은 6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청춘페스타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기획단의 주요 역할은 ▲축제 슬로건 및 콘셉트 결정 ▲세부 프로그램 구성 ▲축하 영상 제작 ▲홍보 활동 등으로 행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결정한다.

행사 준비를 위한 정기 회의는 6-7월 두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북구 청년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수시회의도 개최될 수 있다.

북구는 기획단으로 활동하는 청년에게 소정의 회의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회의 참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북구청장 명의의 활동 인증서를 발급 및 제공할 계획이다. /송현근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매일 첫째 주 일요일에 개최했던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방문객이 낮은 시간까지 여유롭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매일 첫째 주 토요일로 변경·운영한다고 밝혔다.

## 금남로 차 없는 거리, 6월부터 매일 첫째 주 토요일에 운영 6월 7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가족 프로그램

된 운영 부스나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신청 가능하며, 게임은 오후 4시부터 '놀자당' 존에서 진행된다.

도로 위에 인조 잔디를 설치하고 빈백에서 쉴 수 있는 이색힐링 공간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자전거 교육·정비, 에어바운스 등 상설 프로그램은 오후 1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된다.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정책 홍보를 위해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로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인증샷 등 확인을 통해 선착순 3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한다.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금남로 1~3가의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김

남로 1~3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류소에서 전편을 거쳐 충장 파출소 구간으로 우회 운영하며, 일부는 전남여자고등학교 방향으로 운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버스 운행 정보' 공지사항과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조합(☎062-227-87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6월부터 매일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 대·자·보를 이용해 방문하셔서 여유롭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복지 사각지대의 유·청소년을 위한 단기 스포츠 체험 강화 '드림키즈스쿨'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사업은 스포츠 강자 이용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배려 계층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한 문화 생활과 가족 간 유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복권 기금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드림키즈스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

## 서구, 스포츠 체험복지 '드림키즈스쿨' 첫선 오는 26일부터 소외계층 유·청소년 대상 모집

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문화·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초1~중3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 가정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체험비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총 4기로 구성되며 ▲1기 승마교실과 양떼목장 체험 ▲2기 피클볼

(테니스·배드민턴·탁구가 결합된 스포츠), 양궁, VR 스포츠 체험 ▲3기 실내 서핑교실 ▲4기 레이저사격 및 클라이밍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1·2기는 6월, 3·4기는 8월 이후 운영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1기 40명, 2기 80명이며,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스포츠 강자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서구청 체육관광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춘계 체육관광과장은 "드림키즈스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신감과 활력을 키워주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스포츠 복지를 더욱 두텁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 광주 남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운영 자치구 최초, 46개 사업에 66억원 편성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지역 자치구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운영에 나섰다.

남구는 23일 "지방재정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분석해 반영하는 제도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사업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남구는 지난해 11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2025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반영했다.

올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규모는 남구 전체 예산인 6,204억원(본예산 기준)

가운데 2.5% 수준인 153억원 정도이다.

남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을 감축 사업과 배출 사업, 혼합 사업, 중립 사업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구정에서 추진하는 전체 994개 사업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친환경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등 46개로 집계됐으며, 배출 사업과 혼합 사업은 모두 합해 40개였다.

나머지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배출과 관련이 없는 중립 사업이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46개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을 시행했는데, 지방재정 66억원을 투입해 거두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1,218톤에 달한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남구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오는 2026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설비·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체는 210개로 지난해 기준 거래 규모는 280억원이다. 협력업체들은 3월에 납품한 제품 대금은 5월에 정산을 받는 방식이어서 화재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시는 대금이 미뤄질 경우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최소화 할 계

획이다.

시는 금호타이어 측이 합평 빛그린국가산단 이전을 공식화 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적극지원 전제조건은 2029년까지 분담 예정인 빛그린산단 토집 매입비 완납과 이전부지에서 공장 건설 시작이다. 현 광산구 소촌동 공장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공업부지를 상업·주거부지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0월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2단계 사업구역 소재 토지 50만㎡(15만1250평)를 1160억8417만원에 매입하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은 2029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화재로 인해 근로자 고용불안, 대기 오염, 주민 분진 피해, 협력업체 경영 위기 등이 예상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호타이어

측이 공장 재가동 계획을 빠르게 발표할 수 있도록 협의 하고 있다"며 "이전을 추진할 경우에도 현부지 개발계획과 공장 착공이 가시화 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직원 1명과 소방대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공장 대부분을 태우고 76시간만인 지난 20일 진화됐다. /박도일 기자

